

총선 D-27

민주 공천갈등 전방위 확산

“호남 1차 컷 오프 때 ‘여론조사’ 왜 뺐나”

박위원장-지도부 이번엔 ‘전략공천’ 충돌

“盧탄핵 찬성도 감점”에 민주당 출신 분개

공천심사를 둘러싸고 통합민주당 내부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당장 지지부진한 공천작업과 후보 압축에 대한 잡음, 내부간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공천혁명이 되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심위 심사 논란=통합민주당 공심위는 지난 6일 일제감치 수도권 등 단수지역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지만 이 과정에서 단수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심위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의원이 D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호남지역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1차 컷-오프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항목에 여론조사가 포함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현역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랭크했던 예비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일부 후보들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심위의 결정을 강력 비난하는 등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전략공천 충돌=비리 전격차 배제기준을 놓고 한차례 부딪혔던 박재승 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이번엔 전략공천 문제를 놓고 격돌, 양측 간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12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회의에서 “순학규 대표가 종료 출마를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수도권에 출마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간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박 위원장은 11일 밤 당사에서 순학규, 박상천 공동대표와 3인 회동을

갖고 전략공천의 최종 결정권을 자신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두 공동대표의 반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후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 위원장이 현실 정치를 무시하고 일방독주에 나서고 있다며 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a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순학규 대표와 정동원 전 통일장관이 12일 각각 서울 종로와 동작을 출마를 결정했다.

당의 양대 간판주자인 두 사람은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을 양분해 북부벨트는 손 대표가, 남부벨트는 정 전 장관이 맡음으로써 최대 표밭인 서울에서 ‘민주당 바람몰이’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 직전에 정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종로에 출마해 서울 북부벨트를 맡을 테니 정 전 장관은 동작을에 나가 서울 남부벨트를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정 전 장관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 대표가 선택한 종로는 과거 ‘정전 1번지’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다.

孫 종로·鄭 동작을 출마

〈학규〉

〈동영〉

민주 서울 투톱 북·남부 벨트 공략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종로는 보수표와 개혁 표가 적절히 혼재돼 있는 데다 중앙정치의 풍향에 민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종로에 이 지역에서 재선한 박진 의원을 공천, ‘박진 대 순학규’의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손 대표 측은 박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에서 활동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외교안보책임자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여야 대결구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1야당 대표와 맞서기에는 박 의원의 정치적 중립감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초 예상했던 ‘바람 몰이’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 전 장관이 승부처로 선택한 동작들은 정

전 장관과 개인적 연고가 없는 지역이지만 관악-구로-영등포로 이어지는 남부벨트의 중심부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또 종로의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표가 혼재된 지역인 데다 지역 맹주가 뚜렷이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당로서는 충분히 개척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동작들은 정 전 장관과 이미 공천을 확정한 한나라당 이근현 의원 간의 대결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동작을 지역 내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일제감치 표밭을 일궈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전 장관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할 때 안정적 승리가 가능해 ‘남부벨트’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학 재단 관계자’ 우대 싸고 국민자문단·네티즌 등 반발

민주 ‘코드 공천’ 논란 확산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코드 공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12일 공천 배심원 역할을 할 공천심사위원회 산하 국민심사자문단 내에서 ‘동학재단 관계자 우대’ 논란이 일고 있으며 통합민주당 홈페이지가 코드 공천을 반대하는 네티즌들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

◇국민심사자문단 내 논란=국민자문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동학재단 관련자들의 공천 우대 논란이 일기 시작했으며 내용을 종합해 공심위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자문단 관계자들은 광주의

을 공천 했는가”라며 “동학재단 나누어 먹기인가, 무슨 근거로 민심공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동학 혁명당인가’ ‘동학재단 이사들끼리 뭐 하는 거냐’ ‘동학계보 정말인가’ ‘동학농민당 공천심사인가’ 등의 제목의 글들이 올라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탈락 후보 반발 확산=1차 심사에서 탈락한 민주당 광주 서구를 장흥호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지역 1차 공천 압축자 가운데 박재승 위원장과 이이화 위원이 각각 이사와 이사장으로 있는 동

“동학 이사장·이사 빼고 재심의하라”

1차 심사 탈락 광주지역 후보들 촉구

한 지역구와 전주 한 지역구에 각각 출마한 동학재단 관계자의 경우 서류·면접 평가에서 외부 공심위원 대다수로부터 최고평점을 받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당내 계보 공천을 부정하는 공심위가 오히려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공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 반발=이날 민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용선이란 네티즌은 “지역 활동이 거의 없었고 선거사무실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실시에서도 최저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놀랍게도 공심위의 선택을 받았다”며 “추출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일부 공심위원과 그들의 ‘부적절한 결탁’ 혹은 ‘몰아주기’ 의혹이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김심수’라고 밝힌 네티즌은 “무슨 잣대로 호남지역

확동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가 포함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서구를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김영진 예비후보 역시 재단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밀실 코드 공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외부 공심위원들이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공심위와 코드가 맞는 예비후보들을 1차 압축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동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빼고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 관산구에 공천 신청을 냈다가 탈락한 민형배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물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예비후보 8명 중 최하위를 기록한 후보가 놀랐다”며 ‘결탁’과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8 영암왕인문화축제. 2008년 4월 25일 ~ 4월 28일 / 4일간. 행사 - 전남 영암군 국서면 왕인역사문화마을. 행사 프로그램: 1. 4월 25일 (토) 개막식, 2. 4월 26일 (일) 전통놀이, 3. 4월 27일 (월) 민속공연, 4. 4월 28일 (화) 폐막식. 행사장: 영암군 국서면 왕인역사문화마을. 문의: 010-970-0000. www.yeongam.go.kr